

테마칼럼

이념론의 윤리

이제강 9대장

말고승에 윤리

경제로 세상보기

한국, 2050년 국민소득 세계 2위?



송기진

독일계 유대인 마르크스 골드만은 1,800년대 중반 미국으로 이민과 역마차 사업으로 돈을 모았다. 그가 뉴욕 월가에 자기 이름을 딴 어음중개회사를 차린 게 1869년이었다. 회사는 리버브러더스사에서 일하던 골드만의 사위 사무엘 삭스가 경영에 합류하면서 골드만삭스로 이름이 바뀐다. 삭스는 그 후 하버드대학을 나온 두 아들을 회사로 불러들이고 주식과 기업공개(IPO) 업무에 뛰어들면서 회사를 키웠다. 특히, 1956년 당시론 사상 최대 규모였던 포드자동차의 뉴욕증시 상장 때 주간사를 맡는 등 대형기업 인수와 기관 간 주식거래를 잇달아 성공시키면서 1970년대 후반 이후 지금까지 월가 최고의 IB(투자은행)로 우뚝 섰다.
그러한 골드만삭스가 발표한 2007년 미래의 세계 경제에 관한 보고서(Global Economic Paper)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실질GDP는 2005년 말 8천140억 달러에서 2010년 1조 2천900억 달러로, 2025년 2조 6천250억 달러, 2050년 3조 6천840억 달러로 증가하여 2050년에는 세계 13위의 경제규모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1인당 실질소득수준은 2025년 5만1천923달러로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위로 진입하고, 2050년에는 8만1천462달러로 세계 2위로 올라서 미국을 제외한 G7 국가의 수준을 능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물론 여기서 한국은 남북한 경제규모를 합친 수치이다. 그러나, 상당수 전문가 집단들은 이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내며 부정적인 시선을 던졌다고 한다.
역설적이긴 하지만, 2008년도에 우리나라 1

인당 국민소득이 1만9천231불을 기록했는데 1960년 GNP 79달러로 세계 최빈민국 중 하나였던 한국을 당시 골드만삭스가 50년 후 세계 15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한 보고서를 내놓았다면 사람들은 납득했을까? 물론 수긍하지 않았을 것이다.
얼마 전 지역개발사업 업무협약을 체결기 위해 완도군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군수님과 협약체결 후에 근처 장보고 기념관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최수종 씨가 열연하여 당시 시청장이 드보았던 '해신(海神)'의 불목리 세트장도 관광하였다. 해상왕으로 널리 알려지고 최근에 역사적 재평가와 재조명을 받고 있는 이 1,200년 전의 위대한 인물 장보고(張保皋)는 완도도 청해진을 설치한 후 곧바로 주변 해역을 소탕하고 서남해 일대의 해상권을 장악한 후 이것을 토대로 당·신라·일본을 잇는 국제무역을 주도하였다고 한다.
장보고는 페르시아를 비롯한 서역의 상인들과도 교역하였다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는 국제적인 감각을 지닌 첫 세계인인 셈이다. 장보고는 그야말로 해양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인물이다. 우리는 그로부터 해양개척의 정신을 본받아야 한다. 장보고는 우리 민족의 고대 해양 문화적 역량을 결집시켜 우리나라의 역사상 가장 광활한 해양영토를 개척하였다. 그는 산둥반도의 적산포, 남중국, 그리고 일본의 북큐슈 등에 전진기지를 설치하고 활동무대를 동아시아를 넘어 페르시아까지 확대하였다.

정월에 토정비결을 보면 물가에 가지 말라는 주문이 자주 나온다. 물을 경원시하고 멀리하라는 셈이다. 우리는 전국을 삼천리 방방곡곡(坊坊曲曲)이라 부른다. 방방곡곡이란 무엇인가? 산골짜기를 뜻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일본은 바다항구 뜻인 진진포포(津津浦浦)라 한다. 다분히 해양 지향적 표현이다. 혹자는 해양 이후 남한이 급성장한 이유는 북쪽이 막혀 바다로 나갈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 한계로 무역을 하고 배를 만들고 화물을 운송해 성장했다고 진단했다. 유라시아 대륙에는 어느 항구가 많은데, 한반도는 크게 보면 유라시아 부동항으로 볼 수 있다. 해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천혜의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는 셈이다. CCTV '대국굴기'에 등장한 강국들 즉 포르투갈, 에스파냐, 네델란드, 영국, 일본 등이 굴기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게 한결같이 대양으로 뻗어나갔기 때문이 아닌가?
'제 3의 물결'을 쓴 앨빈 토플러는 21세기 미래산업으로 우주, 정보통신, 생명공학 그리고 해양을 꼽았다. 그렇다. 장보고의 해양개척 정신을 되살린다면 골드만 삭스가 제시한 '2050년 국민소득 세계 2위' 또한 지난 2002년 월드컵 때 우리 국민을 대동단결시킨 슬로건 '꿈은 이루어진다'처럼 현실화되지 않을까?
<광주은행장>

시설

기업까지 나서 걱정하는 수도권 중심정책

우리나라 기업들의 2곳 가운데 1곳이 '수도권과 대기업 중심의 정책 추진 가능성'이 지역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으로 꼽았다. 보수적인 기업들조차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대기업 위주의 정책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나타낸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전국 4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발전정책에 대한 기업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49.6%가 지역발전정책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수도권과 대기업 중심의 정책'을 들었다. 이는 '지방의 입지적 한계와 인력난'(22.6%), 기존 지역개발 정책과의 중복(14.6%), 인접시·도 간 협력의 어려움(12.3%) 등 종래 제기됐던 요인을 압도적으로 앞선 것으로, 이명박 정부 들어 일방적인 수도권·대기업 중심정책이 심화되고 있는 사실은 나라를 혼돈상태로 몰아넣고 있는 세종시 문제도 수도권과 대기업

중심정책이 빛은 부작용이라 할 수 있다. 세종시의 본래 목적은 수도권 인구분산 등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에 있다. 그러나 정부가 갑자기 자족기능 부족을 이유로 들어 일부 중앙부처 이전을 백지화하고 기업도시, 과학교육도시 등 온갖 갑언이설로 세종시 원안 수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의 말대로 지리적으로 수도권과 가까운 세종시에 최적적인 조건을 제공할 경우 국내의 대기업들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세종시로 물리고 지방의 공동화는 심화될 수밖에 없다. 결국 세종시 원안 수정은 수도권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술수에 지나지 않은 것이다.
세종시의 본질은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는 새로운 '거점' 도시를 만드는 것이지 또 하나의 기업 도시를 만들자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잘 알아야 한다. 국민은 물론 기업들까지 나서 수도권·대기업 중심 정책을 걱정하는 현실이 될 말하고 있는지 헤아려야 할 것이다.

저출산 대책, 강진군을 벤치마킹하라

우리의 출산율은 1.22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이다. 이는 세계 평균 2.54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수치다. 이대로라면 출산율 1.0명 붕괴는 시간문제다. 25~49세의 핵심 노동인구는 감소세로 전환, 이미 노쇠화에 접어들었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 안위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된 것이다.
정부도 이 같은 심각성을 인식해 25일 열린 미래기획위원회의 '제1차 저출산 대응전략회의'에서 초등학교 취학연령 만 5세 하향 조정, 복수국적 허용 확대, 셋째 자녀부터 태입 및 취업 가산점 부여 방안 등의 다양한 저출산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출산장려 대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아이를 마음껏 낳는 문화' 정착이 먼저다. 그런 면에서 출산율 전국 1위를 차지한 강진군의 사례를 본받을 필요가 있다.
강진군은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두드러진 대표적인 농어촌 지역이다. 그럼에도 강진군의 지난해 출산율은 2.21명

으로 전국 232개 지자체 평균 1.19명의 배에 가깝다. 이는 파격적인 출산장려금 말고도 단체장의 의지, 보육·교육·주거 분야 등 갖가지 제도 개선이 밑거름이 됐다는 분석이다.
강진군은 지속적인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어떤 지역발전 대책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최고 1천만원의 출산 장려금을 비롯해 출산준비금, 임산부 초음파검진비 등 직접적인 지원 외에 지역교육 활성화, 귀농귀대 등 여러 인센티브를 제공했다고 한다. 여기에 외국에서 시집 온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출산의지를 높인 것도 한몫했다. 강진군의 출산·양육 지원정책은 미래의 투자인 셈이다.
저출산 대책은 아이디어 차원의 백화점식 처방을 논할 계기가 아니다. 강진군처럼 출산·양육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시스템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가 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종고칼럼



현지 스님

'빛고을'이라는 지명은 극락정토를 뜻한다. 정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부처의 세계 영산회상인 영산강을 건너거나 극락정토인 극락강을 건너야 정도에 이른다. 극락세계의 주인은 아미타불이다. 영원한 빛 영원한 생명을 뜻하는 이름이다. 곧 빛광(光)자 빛고를 광주는 아미타불이 계시는 극락이라는 뜻이며 무등산 무등(無等)은 아미타를 가리킨다. 불교의 경전인 반야심경에 무등등주(無等等呪)말로 표현할 수 없는 최상

또 하나는 그 누구의 마음도 속이거나 해칠 생각이 없는 티 없이 해맑은 아기의 눈망울이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풍오줌 기저귀 갈아주며 젖 물려 아기 잠재우는 어머니 얼굴이었다. 첫 순위를 가릴 수 없어 이 세 가지 모두를 가지고 제석천왕에게 고하니 미소 지을 뿐이었다. 그리고 얼마의 세월이 흘러. 신하는 아름다운이 다시 보고 싶어 세상에 내려갔다. 아름답기만 하던 꽃은 시들고 티 없이 맑기만 하던 눈망울은 탐욕의

무등산을 어머니 산이라 부른다

의 신비와 비밀의 언어 또는 무우등등(無有等等)서로비하하거나 동등한 것 없어 높고 높은 부처님이라는 뜻에서 무등산이라 이름 지어진 것이다.
더 없이 비교할 수 없는 무등산을 광주 시민들은 어머니 산이라고 부른다. 아마 믿음직하고 덕스럽고 유순한 산세가 어머니 품안처럼 생각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예부터 꿈과 예환을 우뚝 솟은 영산(靈山)무등을 바라보며 이른 새벽이면 정화수 떠놓고 산신님께 나를 위해 할머니 어머니가 두 손 모아 빌어주시던 산이라 더욱 그럴 것이다. 어머니처럼 아름다운 것은 이 세상에 없다. 세상에 가장 부자는 어머니가 계신 것이며 가장 가난한 것은 어머니가 아니 계신 것이라 했다.
그 옛날 수미산 높은 계석천왕이 한 신하에게 인간 세상에 내려가 가장 아름다운 것 하나만 가져오라 하였다. 그는 속세를 해매던 중 마침내 세 가지 아름다운 것을 보았다. 그 하나는 미운사람 고운사람 가리지 않고 향기를 머금고 활짝 피어있는 아름다운 꽃이었다.
<무등산 원효사 주지>

기고



김재익

소고기는 우리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영양식품이다. 특히, 한우고기는 수입고기보다 값이 비싸기는 하지만 그 풍미와 맛이 특이하여 우리 체질에 맞는 신토불이 음식이다. 일반인은 한우와 수입쇠고기를 육안으로 구별이 힘들어서 늘 소비자들은 한우고기를 사면서 이거 정말 한우고기 맞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지난해 광주지역 소재 쇠고기 전문점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

내가 산 한우고기, 수입고기는 아닐까?

매하여 영업정지와 소비자들의 외면으로 음식점 간판을 내린 사례가 있었다. 실제 초·중·고등학교 급식소에서 학부모들의 요구로 가장 많은 검사를 하였고, 요즘같이 날씨가 쌀쌀해지면 한우사육을 많이 끊어 먹는데, 구입한 한우 사육에서 국물이 뽀얗게 잘 우려나오지 않는다고 한우사육이 아닌 수입소나 젓소 사육이 아닌가 의심스러워 검사를 문의하는 전화도 심심치 않게 걸려오고 있다.
광주보건환경연구원 가족위생연구부에서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민원검사와 행정기관 단속검사를 통해 모두 382건을 검사하였다.
이중 한우고기가 아닌 경우는 2005년 10.2%, 2006년 4%, 2007년 1.1%였고, 2008년에는 모두 한우고기로 판정되었다. 젓소고기가 한우고기로 둔갑 판매하는 비율이 해를 거듭할수록 떨어지고 있어, 쇠고기의 유통질서가 최근 몇 년 사이에 매우 좋아졌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수입쇠고기를 한우로 둔갑 판매하는 악덕업주가 엄연히

無等鼓

파라라치, 원래 이탈리아의 영화감독 페데리코 펠리니가 만든 '달콤한 생활'에 등장한 신문사의 카메라맨에서 유래했다. 이탈리아어로 파라라치 행행거리며 달려드는 별레를 말한다.
이후 유럽에서는 예능인·부호 등 유명인들의 스캔들이나 프라이버시를 드러내는 사진을 노리는 질이 나쁜 사진사를 지칭하게 되었다. 그중 최악의 사례는 파라라치에 쫓기던 다이애나 비의 교통사고 사망사건이다. 유럽사회에 파라라치의 폐해를 극단적으로 보여준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그런데 한국사회에서 파라라치는 그 연재부터가 범죄자의 파수꾼을 자처한다.
사회의 곳곳에서 볼레 숨어 카메라를 들이대고 탈·불법의 현장을 적발하고 고발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아이러니하게도 관이 나서 파라라치를 장려하고 있다. 소위 고발포상금 제도다.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에는 '~파라라치'가 어지러운 정도로 많다.
'스파라라치'(스레기 무단투기) '식파

~파라라치 유감



바이오 에너지 각광 유채 재배 확대해야

바이오에너지가 대세인 요즘 쌀 재배를 적절히 줄여서 유채를 심을 것을 주장하는 바이다. 2013년 이후 교통의정서상 이산화탄소를 줄여야하는 의무가 확실시되는 우리나라로서는 바이오 에너지 활용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국내의 연간 바이오 에너지 산업은 거의 황무지에 가까운 실정이다. 바이오 에너지는 식물성 재료를 원료로 하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이산화탄소의 배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결정적 강점이다.
바이오 연료 원료용 유채 재배 사업이 제대로 활성화돼 우리 농촌의 틈새 소득 작목으로 성장하고, 값값도 안정화시키며, 국가적으로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귀중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자원이 되기를 바란다.
▲김윤지·여천시 안산동

주치의 회전시간 들쭉날쭉... 예고제 도입 했으면

회전시간마다 주치의를 기다리는 환자와 보호자들의 불편이 보통이 아니다. 그 이유는 회전시간이 항상 일정치 못하고 들쭉날쭉하기 때문이다.
환자와 그 가족들은 치료가 끝날 때까지 치료과정과 환자의 병적 증세, 그리고 현재의 상태와 앞으로의 예상 진행과정 등을 알고 싶어한다. 이런 설명을 듣자는 게 바로 회전이다. 그런데 그렇게 들쭉날쭉하면 환

자와 보호자들은 정말 지쳐버린다.
그러나 병원에서 전날 회전시간을 예고해주는 시스템을 만든다면 환자들의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서울에 사는 친척한테 들었는데 서울의 몇몇 병원들은 회전시간 예고제를 해서 환자들이 아주 편해졌다는 말을 들은 적 있다. 우리 병원들도 그런 걸 해보았으면 좋겠다.
▲이준호·광주시 북구 운정동

광주일보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誌 논설실장 丁在炫 편집국장 書庚完
1952년 4월 20일 創設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시 회 2 부 2200-692 (F A X 227-0118)
편 집 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정 치 부 2200-634 여론제작부 2200-679
경 제 부 2200-641 체육팀 2200-663
사회 1 부 2200-612 사 진 부 2200-691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